

사회

■ 개장 앞둔 장흥 누드 산림욕장 체험해보니...



20일 누드 산림욕장 이용객들이 시원함을 만끽하기 위해 비덕과 벽면이 편백나무로 꾸며진 토굴 속으로 들어가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편백 향 '술술' 심신 피로 썩~ '누드욕장' 다시 찾을 거예요

'누드'라는 단어가 들어가 선정성 논란 등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장흥 '누드 산림욕장'이 개장에 앞서 일반에 공개됐다. 20일 누드 산림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아할 것이다', '민망할 것이다' 등과 같은 그동안 제기됐던 우려를 말끔히 잊은 채, 맑고 신선한 공기와 풍성한 숲을 만끽했다.

장흥 우드랜드 '비비 에코토피아'가 누드 산림욕장으로는 전국 처음으로 오는 30일 정남진 물축제 기간에 맞춰 문을 연다. 산림욕장은 장흥 억불산 편백숲 우드랜드(35ha) 내에 2ha 규모로 조성됐다.

이날 임시 개장에 맞춰 취재진이 직접 누드 산림욕장을 체험했다. 일부 네티즌들이 우려하던 분

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입장을 위해서는 요금 대신 3000원을 주고 반바지를 구입해야 한다. 반바지만 입고 산림욕을 해도 좋지만 대부분의 입장객들이 2000원을 추가로 내고 옷을 착용했다. 산림욕 전용 반바지와 옷은 천연합성섬유(종이와 면)로 제작돼 통풍이 잘 됐으며, 색깔은 파란색이나 진한 보라색이어서 속살이 전혀 비치지 않았다. 또한 1회용 옷임에도 불구하고 2시간 이상을 사용했어도 찢어지거나 터지지 않았다.

특히 산림욕장은 전 면적이 대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의 시선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산림욕의 단조로움을 개선하기 위해 편백나무 사이에

울막(6개)과 대나무 원두막(7개), 토굴(2개), 야외 의자용 탁자 등 각종 시설이 배치됐다. 가장 인기를 끈 토굴은 20여명이 편히 쉴 수 있는 넓이였다.

누드 산림욕장의 유명세 탓에 장흥군청에는 하루에도 수백 통의 문의 전화가 걸려온다고 한다. 대부분 개장 날짜를 묻는 질문이지만, 일부는 "군청에서 문란한 시설을 만들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무조건적인 항의도 있는 실정이다.

전미숙(43·서울시)씨는 "장흥 우드랜드를 자주 찾았기 때문에 그동안 각종 보도에서 선정성 논란이 일어 걱정했는데, 편안하고 깨끗해 맘에 든다"면서 "편백 향도 좋고, 공기도 좋아 친구들과 다시 찾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연일 '폭염' 순천 어제 35.3도

전력 수요량도 최대치

20일 순천 낮최고 기온이 35.3도까지 치솟는 등 광주·전남·북지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이 계속됐다.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에 따르면 20일 오후 4시 순천(35.3도)과 고창(35.5도)이 35도를 넘는 등 지역 대부분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를 보이면서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또 남원은 34.8도, 전주 34.7도, 광주 34.5도, 정읍 34.4도, 대구 34.4도, 전주 34.3도, 구미 33.8도, 보령 33.5도, 서울 32.6도 등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21일에도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한전 광주전남본부는 19일 오후 3시 광주·전남지역의 최대수요 전력이 4799MW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오후 5시에 기록한 4786MW를 다시 뛰어넘은 여름철 최고치로 지난해 8월 23일 측정된 최대수요전력 4544MW를 약 5.6% 웃도는 여름철 사상 최고 기록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한낮 야외 활동 자제하세요”

고령자 많은 전남도, 폭염 주의 당부

살인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남도의 폭염 피해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정도로 노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밭에서 일하던 노인이 숨지는 등 폭염 사망까지 발생하자 박준영 전남지사가 20일 직접 행동 요령을 22개 시·군에 전달하는 등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박 지사는 일선 시·군에 "폭염특보 발령시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즉시 전화로 연락해 긴급구조를 구축하는 등 폭염대비 종합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노약자들은 폭염피해가 가장 심한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의 경우 통계청의 '2010 인구구조

특 총조사'결과,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4%에 달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고령군 두원면을 비롯, 화순군 청풍면(44.16%), 장흥군 부산면(43.98%), 영광군 군남면(43.79%), 보성군 노동면(43.60%), 해남군 계곡면(42.42%) 등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40%가 넘는 지역이다.

전남소방본부도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32명의 폭염 환자 가운데 80대가 25.8%에 이르는 등 50대 이상이 전체 환자의 58.1%에 달한다는 점에서 무더운 시간대 농작업, 야외활동, 음주 후 차량 내 취침 등을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김지희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교육청, 담임 연임제 도입 추진

두 달가량 2572곳(1544만원 상당)을 관 협의의 받고 있다.

또 전주시의 모 식품은 커피 0.67%만 사용하고 제품에는 커피 1%로 허위 표시하고 지난 2008년부터 올 5월까지 커피면 2만4580봉지(6145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다.

커피를 전혀 쓰지 않은 식당에서는 커피면과 같은 검은 빛깔을 내기 위해 메밀이나 코코아가루를 넣기도 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고 교육의 질도 높아지는 취지다. 5.6학년 가운데 동일 학년을 5년 이상 맡은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담임 연임제는 학교 운영위 사전 심의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도 했다.

또 학생 맞춤형 종합진단·처방·관리 시스템을 구축, 학생별로 적절한 학습방법을 제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 대학 및 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하고 3년 주기 맞춤형 진단에 나설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Weather forecast section titled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showing a map of Korea with weather icons for various cities and a table of temperature forecasts for different regions.

A group photo of award winners and organizers for the '제 56회 호남예술제 새싹 그리기 축제 시상식' (56th Hwangnam Arts Festival Sapling Drawing Festival Award Ceremony).

광주일보사가 주최한 제 56회 호남예술제 새싹 그리기 축제 시상식이 20일 오전 광주일보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수호 원장, 송현희 세운그림유치원 교사, 유재철 광주일보 사장, 최봉훈 원장.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세운그림유치원 최고상 수상

제 56회 호남예술제 새싹 그리기 축제 시상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제 56회 호남예술제 새싹 그리기 축제 시상식이 20일 오전 광주일보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세운그림유치원(원장 백희숙)이 종합 최고상을, 해담은이화어린이집(원장 김수호)과 아이조아유치원(원장 최봉훈), 이화숲

유치원(원장 이은영)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새싹 그리기 축제는 미취학 아동들이 참여하는 미술 경연으로, 올해 행사에는 모두 1000명이 참가해, 실력을 뽐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칩없는 칩냉면' 판매 8곳 적발

광주지역 식당 1곳 포함

여름철 인기 식품인 칩냉면의 칩 함량을 숙여 판 음식점과 제조업체가 적발됐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칩을 전혀 넣지 않거나 함량을 숙여 판매한 칩냉면 식당 및 제조업체 8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광주지역 식당 1곳과 경기, 충남, 경남, 전북의 칩냉면 제조 업체들이다.

광주시 서구 한 식당은 칩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면서도 간판과 메뉴에 칩냉면이라고 숙여 지난 3월부터

Advertisement for 'Goga Hanseok Bujip' (古家 韓食 燻皮)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bowl of soup and text describing the restaurant's specialti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2010 Korea Food Expo COEX' featuring a chef, various food dishes, and promotional text for a cooking course and restaurant.